



「한국인 변화하는 의식」 本社 여론조사 - 전국 1,200명 면접

20代여성 5명중 1명 "계약결혼 희망"

95.4.15

남성들도 家父長 역할 꺼려 "자유로워지고 싶다,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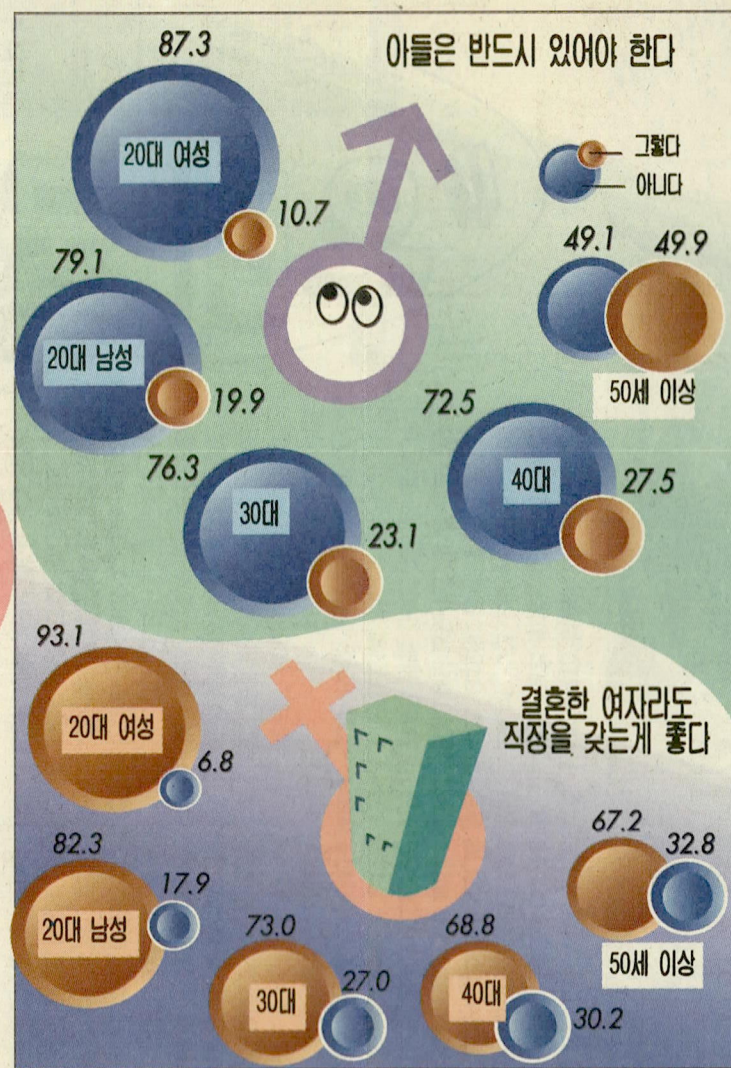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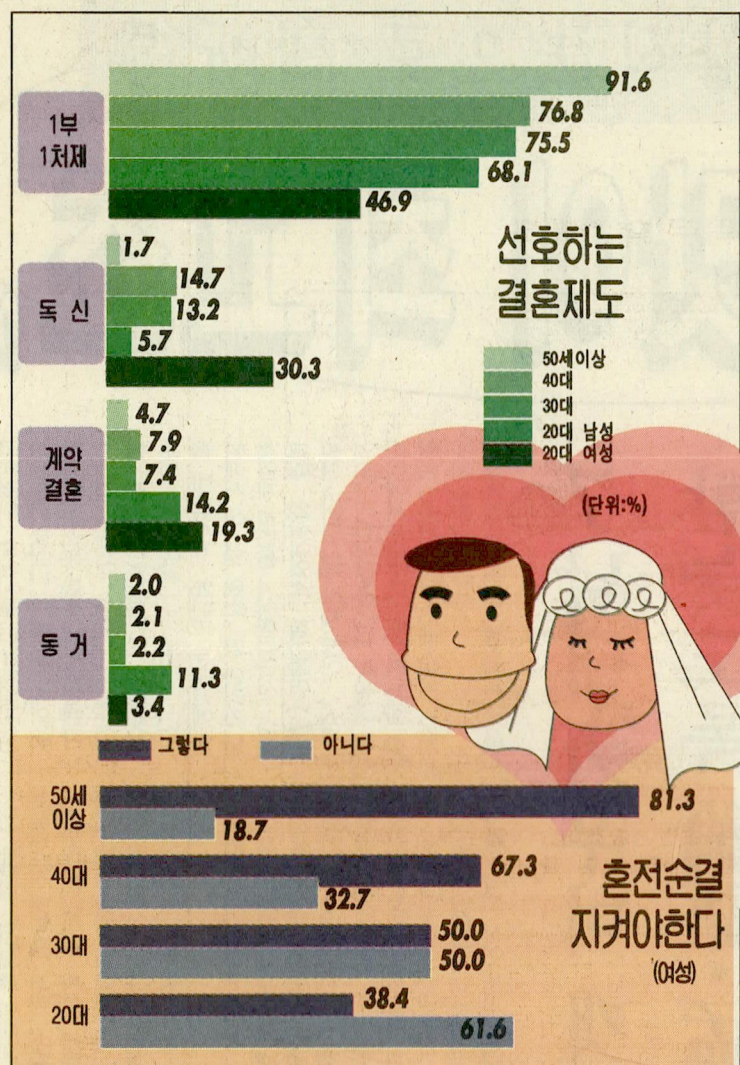
1面서 계속

반 드시 결혼해야 한다」는 20대 여성은 12.4%, 20대 남성은 35.5%. 기존세대의 생각과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(50세 이상: 75.7%, 40대: 47.7%, 30대: 42.2%). 현재 우리 사회의 20대 남녀 성비(性比)는 104.22:100.00으로 남자가 남아돌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, 여성의 결혼관까지 변함으로써 원치않는 독신을 택하게 되는 남성들이 늘것으로 보인다. 「여성은 결혼할 수 있는데도 안하며, 남성은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」는 일본의 사회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. 절반의 20대 여성이 「일부일처제」를 부정한다(53.1%). 사회적 제약이 없다면 독신(30.3%)·계약결혼(19.3%)·동거(3.4%)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. 변화되는 가치관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독신선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때 여성의 「미혼화」 「홀로서기」가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.

독신·동거도 "고려할만,"

「20대 여성들은 결혼보다 일을 하고 싶어한다. 결혼한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(92.4%, 50세 이상: 67.2%, 40대: 68.8%, 30대: 73.0%, 20대 남성: 82.3%). 뿐만아니라 55~70세의 노인이 되어도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한다(81.3%). 이들에게는 직장이 결혼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, 자신들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.

20대 남성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. 이들은 계약결혼(14.2%)이나 동거(11.3%)에 특별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. 「일부일처제」의 가부장적 남성역할에서 자유로워지고



그래픽=李廷權·金東旭·具珍希기자

미혼女 26.6%가 性경험... 평균 2.2명과 관계 부모 모시기·아들 선호 20代선 일부에 불과

미만의 성경험자도 4.2%나 된다. 20대 미혼남성의 성경험률은 61.3%, 여성 50세 이상: 15.6%, 40대: 10.6%, 30대: 9.9%, 20대 남

만하다. 그러나 별로 개의치 않는 대 여성은 소수파다(22.3%). 같은 생각을 하는 20대 남성은 조금 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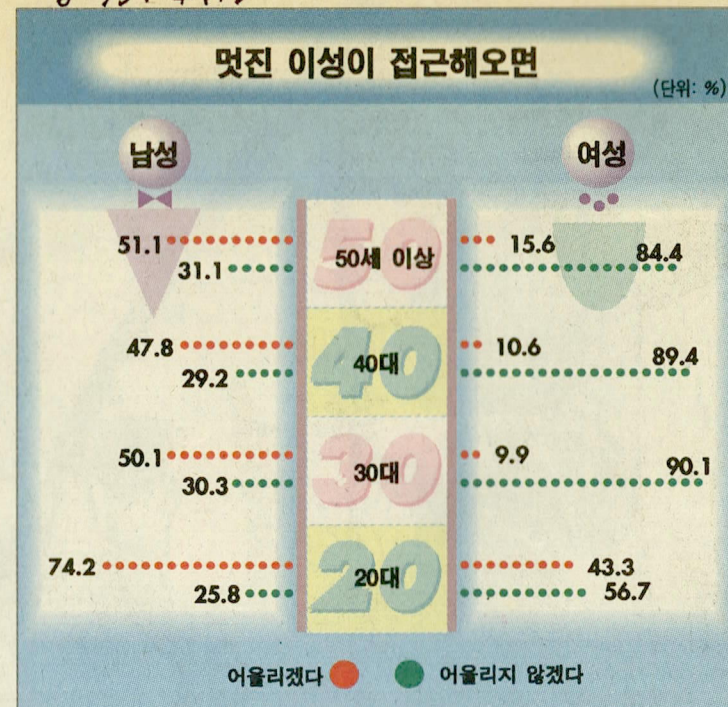
세대일수록 공감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(50세 이상: 46.8%, 40대: 40.1%, 30대: 33.3%, 20대: 22.3%).

세대일수록 공감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(50세 이상: 46.8%, 40대: 40.1%, 30대: 33.3%, 20대: 22.3%).

세대일수록 공감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(50세 이상: 46.8%, 40대: 40.1%, 30대: 33.3%, 20대: 22.3%).

세대일수록 공감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(50세 이상: 46.8%, 40대: 40.1%, 30대: 33.3%, 20대: 22.3%).

중 95.4.15



어야 한다」는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롭다. 적은 수의 20대 여성(10.9%)과 20대 남성(19.9%)만이 아들에 집착할 뿐이다.

20대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습들에게 도전한다.

부엌일은 여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20대 여성들은 남자가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(64.7%, 여성 전체: 48.5%). 20대 남성들의 공감 비율도 이전세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(35.1%, 남성 전체: 25.6%). 「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는 안된다」는 주장을 하는 20대는 극소수다(남자: 6.9%, 여자: 2.2%). 부엌이 더 이상 남성들에게 금지구역이 아니다.

「가족생계는 共同」 전환

「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으면 남자가 위축된다」는 의견에 젊은

교과서에서 배운 예절교육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. 「공공장소에서 노인을보면 자리를 비켜야한다」고 생각하는 20대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(58.0%, 전체: 70.2%).

어머니 앞에서 맞담배를 피운다는 20대도 있다(5.2%, 전체: 3.2%). 웃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20대(10.2%, 전체: 6.3%)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나 약간씩 증가 추세다.

敬老사상 절반만 수긍

조사결과로 우리 사회의 의식의 단절, 가치관 전도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. 그러나 새 가치관을 가진 신세대 인간형은 새로운 세대의 보편적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. 기성세대가 이들을 「버릇없는 세대」로 간주한다면 갈등이 불가피하다. 그러나 그것을 변화의 한 흐름으로 본다면 가치관의 새로운 절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.

우리 사회가 남녀에게 모두 평등한 구조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매우 적은 형편이다(4.0%, 20대 남성: 18.1%, 전체: 12.4%). 신인간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, 특히 20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

남성들도 家父長 역할 꺼려 "자유로워지고 싶다."

반 드시 결혼해야 한다」는 20대 여성은 12.4%, 20대 남성은 35.5%. 기존세대의 생각과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(50세 이상 : 75.7%, 40대 : 47.7%, 30대 : 42.2%). 현재 우리 사회의 20대 남녀 성비(性比)는 104.22 : 100.00으로 남자가 남아돌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, 여성의 결혼관까지 변함으로써 원치않는 독신을 택하게 되는 남성들이 늘것으로 보인다. 「여성들은 결혼할 수 있는데도 안하며, 남성은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」는 일본의 사회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.

절반의 20대 여성이 「일부일처제」를 부정한다(53.1%), 사회적 제약이 없다면 독신(30.3%)·계약결혼(19.3%)·동거(3.4%)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. 변화되는 가치관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독신선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때 여성의 「미혼化」 「홀로서기」가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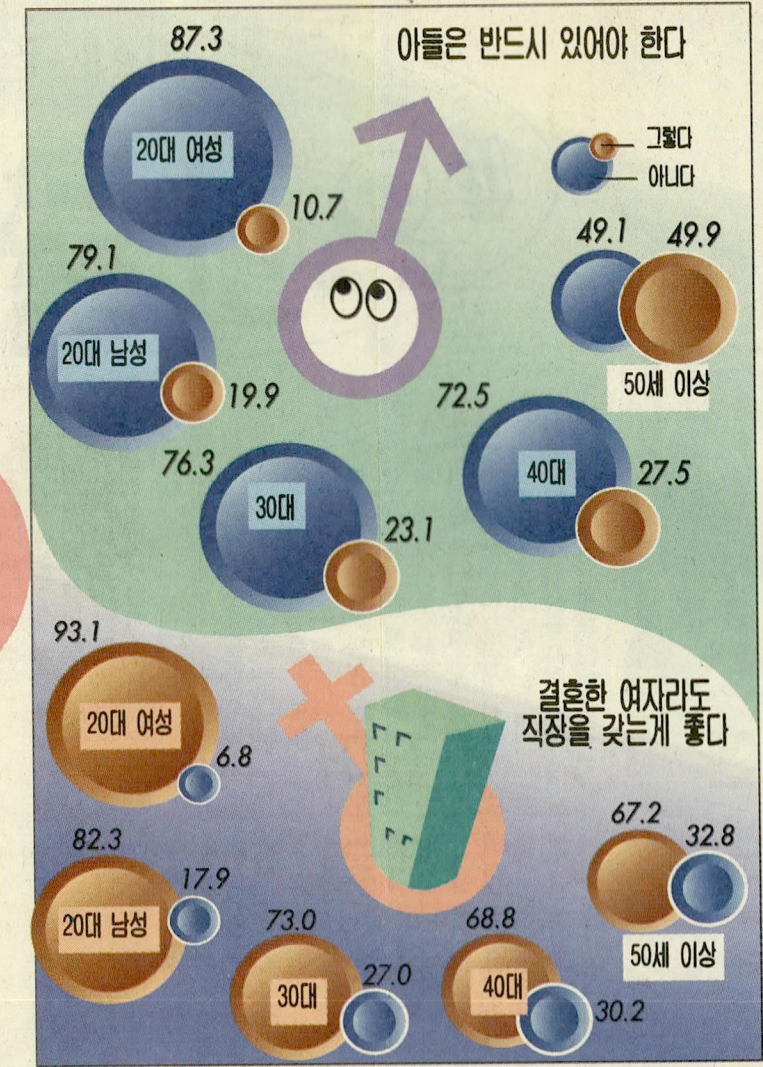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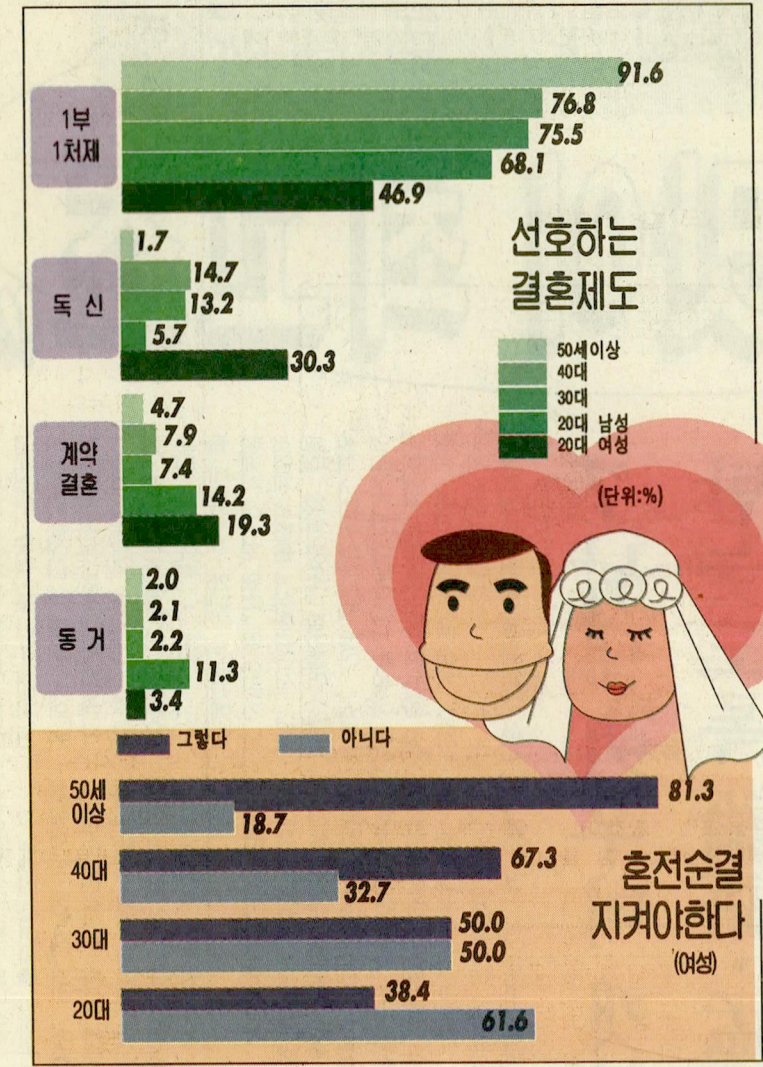
독신·동거도 "고려할만"

20대 여성들은 결혼보다 일을 하고 싶어한다. 결혼한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(92.4%, 50세 이상 : 67.2%, 40대 : 68.8%, 30대 : 73.0%, 20대 남성 : 82.3%). 뿐만아니라 55~70세의 노인이 되어도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다(81.3%). 이들에게는 직장이 결혼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, 자신들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.

20대 남성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. 이들은 계약결혼(14.2%)이나 동거(11.3%)에 특별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. 「일부일처제」의 가부장적 남성역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해석된다.

20대는性に 대해 개방적이다. 「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」는 명제에 20대 여성은 공감하지 않는다(61.6%), 대부분의 50세이상 여성이「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」고 고집하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(81.3%, 40대 : 67.3%, 30대 : 50.0%).

실제로 20대 미혼여성 중 성관계를 가진 경험자 있다는 여성은 26.6%. 경험자들은 평균 2.2명과 관계했다고 고백한다. 최초의 성경험을 가진 나이는 평균 21.6세다. 18세



그래픽=李廷權·金東旭·具珍希기자

미혼女 26.6%가 性경험... 평균 2.2명과 관계 부모 모시기·아들 선호 20代선 일부에 불과

미만의 성경험자도 4.2%나 된다. 20대 미혼남성의 성경험률은 61.1%. 경험자들은 평균 3.6명과 관계를 가졌고, 최초의 경험은 20.6세다.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성경험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분명 존재한다.

"즉석데이트 무방" 43%

그러나 우리 사회의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20대 여성의 고백은 적지 않은 사회적 과장을 남긴다. 20대 여성의 절반이 멋진 이성 접근해 오면 어울리겠다고 한다(4

3.3%, 여성 50세 이상 : 15.6%, 40대 : 10.6%, 30대 : 9.9%). 20대 남성은 멋진 이성의 접근에 훨씬 더 적극적이다(74.2%, 남성 50세 이상 : 51.1%, 40대 : 47.8%, 30대 : 50.1%).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정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만큼

만하다. 그러나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. 20대는 전통적인 도덕관을 거부한다. 「결혼하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도리다」고 생각하는 20

대 여성은 소수파다(22.3%). 같은 생각을 하는 20대 남성은 조금 더 많은 정도다(31.0%, 전체 : 44.4%). 스스로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적은 이들 세대는 「아들이 반드시 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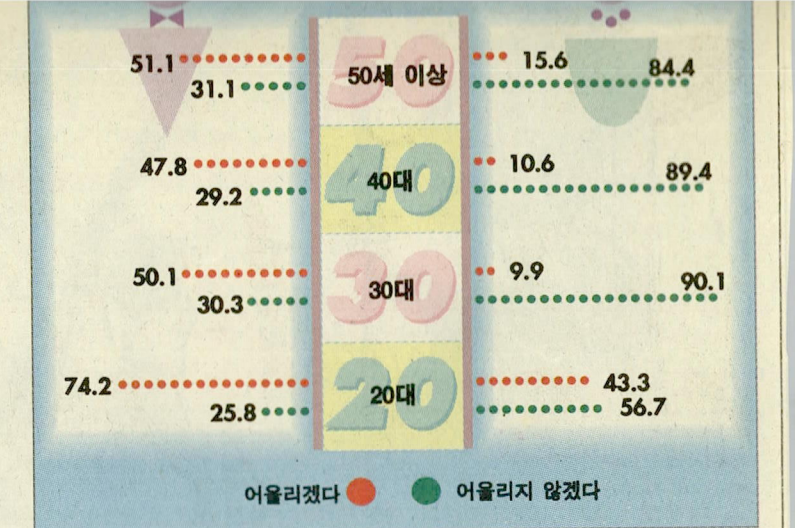
세대일수록 공감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(50세 이상 : 46.8%, 40대 : 40.1%, 30대 : 33.2%, 20대 남성 : 30.8%, 20대 여성 : 30.1%). 가족 생계를 「남성이 전적으로 책임」지는 시대에서 「공동으로 책임지는 시대」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.

조사 방법

▲조사일시 : 3월25일~4월6일
▲조사방법 : 정형화된 설문지(Structured Questionar)를 사용하여 1 : 1 개별면접과 자기기입식(性的식관련 문항)을 혼용
▲조사대상자수 : 섬·휴전선인접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만18세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1천2백명을 조사

▲표본추출 : 다단계화 무작위 추출. 모집단 비율은 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서(경제기획원)를 준거.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시는 지점당 5~7가구, 읍·면은 10~12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▲조사지점 : 시·군 인구비에 따라 도시·

비도시로 나눠 도시에서는 동·통·반을, 비도시에서는 읍·면·리를 각각 무작위 추출. 표본지점이 공장밀집지역등으로 인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20%의 예비조사지점을 추출
▲허용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2.8%



어야 한다」는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롭다. 적은 수의 20대 여성(10.9%)과 20대 남성(19.9%)만이 아들에 집착할 뿐이다.

20대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습들에게 도전한다.

부업일은 여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20대 여성들은 남자가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(64.7%, 여성 전체 : 48.5%). 20대 남성들의 공감 비율도 이전세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(35.1%, 남성 전체 : 25.6%). 「남자는 절대로 부업에 들어가서는 안된다」는 주장을 하는 20대는 극소수다(남자 : 6.9%, 여자 : 2.2%). 부업이 더 이상 남성들에게 금지구역이 아니다.

"가족생계는 共同" 전환

「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으면 남자가 위축된다」는 의견에 젊은

교과서에서 배운 예절교육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. 「공공장소에서 노인일보하면 자리를 비켜야한다」고 생각하는 20대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(58.0%, 전체 : 70.2%).

어머니 앞에서 맞담배를 피운다는 20대도 있다(5.2%, 전체 : 3.2%). 웃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20대(10.2%, 전체 : 6.3%)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나 약간씩 증가추세다.

敬老사상 절반만 수긍

조사결과로 우리 사회의 의식의 단절, 가치관 전도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. 그러나 새 가치관을 가진 신세대 인간형은 새로운 세대의 보편적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. 기성세대가 이들을 「버릇없는 세대」로 간주한다면 갈등이 불가피하다. 그러나 그것을 변화의 한 흐름으로 본다면 가치관의 새로운 절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.

우리 사회가 남녀에게 모두 평등한 구조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매우 적은 형편이다(4.0%, 20대 남성 : 18.1%, 전체 : 12.4%). 신인간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, 특히 20대 여성들은 기성세대에게는 「가치 파괴」로까지 비치는 많은 도전을 할 것이다.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, 어떻게 수용하는 가는 우리 사회의 숙제다. 궁극적으로는 기성세대가 좋은, 싫든 신세대의 도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. 이러한 변화를 예감한 사회학자들은 신세대의 생활스타일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.

金 沓 조사전문기자